

인문계열 면접 예상질문 & STAR 모범답안

「면접끝판왕」 통합개정판 교재 코어 무료 공개 문항 · 2026학년도 기준 · 평가 의도와 STAR 구조 모범답안 예시 수록

Q1. 국어 교과 세특에 이육사, 윤동주 비교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, 설명해 주세요.

· 평가 의도 · 이육사·윤동주 비교 연구(국어 세특)

[결론] 두 시인은 같은 시대 일제에 저항했지만, 이육사는 '행동하는 의지'로, 윤동주는 '성찰하는 부끄러움'으로 저항 방식이 달랐다는 것이 제 연구의 결론입니다.

[상황·과제(ST)] 국어 세특 활동으로 「광야」와 「서시」를 비교하면서, 단순 감상 비교를 넘어 저항의 '방식' 차이를 규명하는 것을 과제로 잡았습니다.

[행동(A)] 두 시인의 생애 연보와 시어 빈도를 직접 표로 정리해, 이육사의 남성적·대륙적 시어(광야, 초인)와 윤동주의 반성적 시어(부끄러움, 우물)를 대조했습니다.

[결과·배움(R)] '저항'이라는 하나의 주제도 삶의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언어로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고, 이후 문학을 시대적 맥락과 함께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.

☒ 코칭: 기록 내용의 '요약 재진술'에 그치지 말고, 내가 세운 기준(비교 축)과 직접 한 행동(표 정리·자료 대조)을 반드시 넣으세요.

Q2.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배운 점을 말해 보세요?

· 평가 의도 · 자율동아리 활동의 구체성과 배운 점 확인

[결론] 기획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, 그리고 관점이 다른 친구를 설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.

[상황·과제(ST)] 2학년 때 독서토론 자율동아리를 직접 만들었는데, 초반에 참여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.

[행동(A)] 원인을 설문으로 조사해 '책 선정이 일방적'이라는 답을 얻었고, 매월 후보 3권을 투표로 정하는 방식과 발제 역할 순환제를 도입했습니다.

[결과·배움(R)] 참여율이 회복되어 1년간 12회 토론을 완주했고, 공동체 활동은 시스템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. 대학에서도 학술 소모임을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.

☒ 코칭: '배운 점' 질문은 추상어(협동심, 배려)로 끝나면 감점 요인입니다. 문제 상황 → 내가 바꾼 것 → 수치·결과 순으로 답하세요.

Q3. 글쓰기 상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무엇인가요?

· 평가 의도 · 글쓰기 수상 경험의 구체성 확인

[결론] 수상보다 과정이 기억에 남는 교내 인문학 에세이 대회를 꼽고 싶습니다.

[상황·과제(ST)] 'AI 시대에 인간다움이란'이라는 주제를 받고, 처음에는 기술 비판 일변도의 초고를 썼다가 논리 비약을 지적받았습니다.

[행동(A)] 반대 입장의 책을 두 권 더 읽고, 기술 옹호 논거를 본문에 먼저 소개한 뒤 반박하는 구조로 전면 재구성했습니다.

[결과·배움(R)] 좋은 글은 내 주장을 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을 정직하게 다루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고, 이는 지금 면접 답변에서도 지키려는 원칙입니다.

☒ 코칭: 수상 실적 질문의 평가 포인트는 트로피가 아니라 '퇴고 과정'입니다. 초고의 한계 → 수정 행동을 말하면 사고 과정이 드러납니다.

Q4. 문화재를 복원하려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?

[결론] 복원을 강행하기보다, 반대의 '진짜 이유'를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밟겠습니다.

[근거·판단 기준] 문화재의 공적 가치와 주민의 생활권·재산권은 모두 정당한 이익이므로, 어느 한쪽을 전제 없이 우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[행동(A)] 공청회와 개별 면담으로 반대 이유(소음·통행 제한·보상 문제 등)를 유형별로 나누고, 공사 시간 조정·우회로·관광 수익 환원 같은 조건부 대안을 설계해 합의점을 찾겠습니다.

[결과·마무리] 그래도 합의가 어렵다면 복원 시기를 늦추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. 문화재는 결국 그 지역 사람들이 지켜갈 유산이기 때문입니다.

☒ 코칭: 정답이 없는 갈등 상황 문항은 '이해관계자 구분 → 판단 기준 → 절차'의 3단 논리로 답하면 안정적입니다.

Q5. 『냉정과 열정 사이』를 읽으면서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흥미를 느낀 것 같은데, 그 책을 읽고 일본문화와 음악에 대해 느낀 점이 있나요?

[결론] 이 책은 저에게 일본 문화를 '감정을 절제해 표현하는 미학'으로 이해하는 입구가 됐습니다.

[상황·과제(ST)] 소설 속 피렌체와 도쿄의 공간 대비, 그리고 인물들이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는 문체가 인상 깊어, 일본 문학의 표현 방식이 문화에서 온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.

[행동(A)] 이후 일본 단편과 에세이를 찾아 읽고, 음악 시간에 배운 일본 전통 음계의 여백과 연결해 '절제의 미학'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.

[결과·배움(R)] 한 권의 소설이 언어·음악·문화 전반에 대한 탐구로 확장되는 경험을 했고, 일어일문학과에서 문화 텍스트를 비교 연구하고 싶다는 목표가 구체화됐습니다.

☒ 코칭: 독서 질문은 줄거리 요약 금지. '책 → 파생 탐구 → 전공 연결'의 확장 서사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.

더 많은 문항·AI 채점 훈련은 interviews-platform.netlify.app 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가입 없이 진단 체험 가능)